

어린이 책꽂이

▲노빈손 곤충세계의 마법을 풀어라=아이들에게 자연과 가까워지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생태 시리즈'인 마법에 걸려 애벌레가 된 노빈손이 인간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겪는 온갖 곤충세계의 모험이 흥미진진하다. (뜨인돌·9천500원)

▲웅녀의 시간여행=여섯편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존재와 존재가 맺어주는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화집. 물고기 도둑, 나뭇근깨, 학교에 가다, 문을 열면 등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6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문학과 지성사·8천500원)

▲원득이=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지만 싸움만큼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열일곱 살 소년이다. 절친지 원수였다가 차츰 '사랑스러운 적'으로 변모하는 선생 '동주'를 만나면서 원득이의 인생은 180도로 바뀐다. (창비·8천500원)

▲찰리체플린=웃음과 눈물로 인생을 연기한 위대한 영화인 찰리 체플린의 일대기. 어려움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가르쳐준다. (다섯수레·9천원)

▲한국사를 뒤흔든 열명의 장군=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 그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 장군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을지문덕, 고선지, 감감찬, 삼별초, 권율, 이순신, 임경업, 전봉준 장군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만날 수 있다. (한림출판사·1만2천800원)



고 3딸에 보내는 '소설가 엄마의 편지'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지음

'오늘도 좋은 하루!' 엄마는 지긋지긋하고 고 3을 보내고 있는 딸 아들에게 매주 화요일 편지를 썼다. 공부에 짓눌려 있는 아이에게 세상 사는 지혜를 전해주고, '엄마와 이야기 하기 싫다'며 토라진 아이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책의 구절을 소개해 주며 '대화'를 나눴다. 편지를 쓴 엄마는 소설가 공지영이다. 편지를 받은 딸은 베스트셀러 소설 '즐거운 나의 집'에 등장하기도 했던 '위녕'이다. 공지영이 당시 딸에게 썼던 편지를 토대로 한 산문집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를 펴냈다. 딸 아이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다.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편지글의 매개체는 책이다. 공지영은 누군가에게 어처구니 없는 오해와 공격을 받고 힘들어 하는 딸에게 '네 자신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네 자신 뿐이다'(안셀름 그린의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라')라는 구절을 들려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오늘 하루만 쉬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딸에게,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14봉을 완등한 라인홀더 매스너의 '내 안의 사막, 고비를 건너다'의 글귀를 들려주며 매일 내딛는 한 발자국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죽음을 앞둔 팔순의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전하는 편지를 모은 수산나 타마로의 '내 영혼의 따뜻한 날들'을 읽은 날엔 딸에게 '헤어짐을 아쉽게



만들고, 영원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며, 그 사람을 알았던 것이 내 인생에 분명 하나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잘 헤어질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또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인 황석영의 단편 '물개월의 새'를 읽으며 모든 유치한 것들을 경멸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박경리의 'Q씨에게'를 소개하며 가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작가 엄마'의 힘겨움에 대해서도 털어놓는다. 이 책 역시 그녀의 예전 산문처럼 '솔직한 글쓰기'가 눈에 들어온다. 때론 다소 뻔한 메시지도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드러내며 들려주기에 진심이 보인다.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오스카 와일드의 '유증기', 로맹가리의 '새들은 페루에서 죽다', 전봉관의 '경성기타', 산드로 마리아의 '열정' 등 편지에 언급된 책들을 한번쯤 읽어 보고 싶게 만드는 것도 이 책의 매력이다. 책 말미에는 '조금은 발난엄마를 둔 당신의 딸이어서 참 많이 외로웠다'는 위녕이 쓴 에필로그가 실려 있다. '다행입니다, 정말로. 내가 당신의 딸이라는 게'라고 쓴 위녕은 '당신의 말처럼 사람



이 나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허락하고, 넓치도록 가득한 젊음과 자유를 실패하는 데 투자하고, 넓은 사막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방황하며 엄마처럼 살겠다' 말한다. 그 말에 엄마는 이렇게 답했다. '세상의 모든 문들이 네 앞에서만 셔터를 내리고 있을 때, 모두 지정한 좌석표를 들고 있는데 너 혼자 임시 대기 자리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보이지 않아도 널 응원하고 있는 엄마를 생각하라고.' 조광호 신부가 본문 삽화를 그렸다. (오픈하우스·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

나는 오랫동안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며 놀았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은 환하고 선명하다. 나는 다 큰애들한테도 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엔 시시하다고 하더니 어느새 옆으로 와서 기대거나 책상 가까이 들러붙어 그림을 뽐내며 보면서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 글쓰기 수업보다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어서 책에 나오는 상황과 자기 삶의 이야기를 건주어서 글을 쓰고 함께 돌려 읽으면서 조금씩 아이들을 알아갔다. 공부 끝나면 아이들의 가족관계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아이들을 마음껏 담았다. 아이들의 상처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내일은 더 나아지라고 빌어주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은 아이들에게 내어주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어기지 않고 꼭 파주는 선생님, 이 길 통해 아이들을 배운다는 걸... 내가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아이들과 문학을 이야기하며 살아온 날들의 밑바탕에는 '문학은 인간학이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샘터)는 최민식 선생님

고단한 삶 이겨 내게 하는 힘



의 사진에 조은 시인이 글을 붙인 책인데, 삶에 대해 이토록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 책도 드물 것이다. 고된 삶에 내몰린 사람들의 텅 빈 눈망울, 위태로운 세계 속에 들어앉은 샘물 같은 아이들,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운 생의 덧없음과 노동의 신성함,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매혹적인 미소 같은 것들이 마음속을 사로잡는다. 특히 절망과 마주한 아이들의 눈을 보면 숨이 멎는 것 같다.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어둠뿐인 아이들, 벗어나기 힘든 운명에 친친 감긴 것 같은 아이들의 남루한 현실이 아프다. 그래서 마음 가득히 물기가 고인다. 마치 케테 콜비츠의 목관화 속 아이들이, 내가 알고 지냈던 힘든 현실의 아이들이 사진 속으로 뛰어든 듯한 것 같다. 한 사회의 어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이 책은 내게 삶의 지향점을 일러주었다. 때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은 외면하고 싶은 만큼 서글프고 뜨겁다. 삶이란 처절하고 참혹하지만 끝내 두 눈으로 마주보고 끌어안아야 하는 우리 삶의 존엄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 손에서 다른 이의 손으로 자꾸만 전해져 스스로 생명력을 갖게 되는 '흘러가는 책'들 중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가 놓여 있다. 흘러가는 것들은 영혼을 흔들며 삶의 의미들을 빚어가며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이는 분에게 소개했더니, 그분은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연결로 그리고 있다. 자신에게 삶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다고 소감을 들려준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만이 어둠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그것은 자기 삶을 정지하게 바라볼 때 가능하고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긴 얘기를 나누고 싶다. 정봉남 <아이숲 어린이 도서관장>



신문기자 출신 MC의 전국 나무 여행기

내안에 나무 이야기 이상벽 지음



방송 생활 40년이 되던 해 MC 이상벽은 오랫동안 간직했던 사진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잠시 방송일을 접었다. 3년 동안 필름을 쓰는 구식 수동 카메라 하나 메고 전국을 누볐던 이 씨가 발품을 팔며 찍은 사진과 글을 모아 '내안에 나무 이야기'를 펴냈다. 지난해 서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던 이 씨의 사진 소재는 '나무'다. 10여년간 발을 일구 나무를 심고 가꾸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 씨는 오래전부터 나무에 애착을 가져왔다. 이번 책에 실린 작품은 모두 52점으로 용문사 은행나무, 고속도로변 작나무 등 다양한 나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신문기자 출신답게 글솜씨도 맛갈스럽다. (크리에이티브·1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긍정적 사고

3분 시크릿 편기욱·김민광 지음



지난해 출간된 지 8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린 자기계발서 '시크릿'의 열풍은 수많은 '시크릿' 마니아들을 배출했다. 최근 1만3천여 명의 회원이 거느린 '비온드 더 시크릿'(http://cafe.naver.com/beyondthesecret) 사이트의 운영자와 회원들이 '시크릿 비법'으로 전수받은 성공담과 그 실천방법을 담아 '3분 시크릿-생각 편·실천 편' 두 권으로 펴냈다. 책은 막연하게 느껴지는 '시크릿 법칙'을 활용해 공사에 합격할 취업 준비생, 100명에서 맴돌다 전교 1등이 된 고등학생 등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흐름출판·각 권 1만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울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남·48), 최영아(여·3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재능방송·한국경제TV·부동산TV출연 강사진!
개강 4월1일 주야 합격 (수강생 기초강의 동영상 무료)
 을원하신다면 필수강의. 참가자는 아무런 이유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롭을 선택하십시오.
국비무료 고용보험 기금근로자 교육비환급 현재접수중 ☎ 529-8111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33개 학원개원)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은 학원 1위 ● 신개념 커리큘럼이 추천한 1등학원 ● 입학과 신리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행정고시학원
 서울점 ☎ 361-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 옆 도영빌딩
 북구점 ☎ 529-8111
 ▶ 개령동 구시상사거리(중흥동) 대한일보 옆 청송빌딩 6층

2008년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모집기간 : 3월 31일까지]

과정	전자정보Technician (다기능기술자)	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
훈련내용	컴퓨터기초 및 활용, 정보통신망 및 전자회로 실습, 광 cable 접속 및 측정, UTP cable 접속 및 측정	PC운영체제 및 장비, 인터넷 검색 및 활용, O/A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HTML과 웹페이지
비용	정보통신 실무(1개월 현장실습)	오피스 실무(1개월 현장실습)
자격증	정보통신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통신선로 기사사, 정보기기 운용 기사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기기 운용 기사사, 컴퓨터 활용 능력, 문서 실무사

● 모의대상: 1. 만 15세이상~65세 미만 (주부, 가계업자, 알선업자, 고용보험적용자), 2. 자활훈련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3. 2008년 2월 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야간대학교 및 방송대학교 재학생
 ● 훈련기간: 1. 기사, 산업기사 방과후 특별지도, 2. 교동비(5만원) 및 사비(8만원) 지급, 3. 교재비, 실습비 전액국비지원, 4. 훈련중 상의우수자 또는 동일직종 자격취득 시 장학금 지급, 5. 훈련후 채용예정업체 취업알선, 6. 훈련후 동일직종 취업시 기간별 취업장려금 지급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우체국 공장 사본 1부, 4. 증명사진 3매(3*4cm), 5. 직업훈련 구직등록필증 1부(직업훈련 패라라지 교육이수후 발급)
현대직업전문학교
 광주 동부경찰서 앞 ☎ 062-224-4560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7급 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발원직, 검정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특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의직
 =무등의 프로교수팀이 생동감 넘치는 강의로, 높은 커충률을 자랑합니다!!=
9급이론반·주간 2개월반, 야간 2개월반
 *5월24일 지방직 대비 *4월1일(주·애매) (본격시험준수)
개강 7급강좌: 국가직 7월 26일 지방직 9월 27일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 "무등"을 찾으십시오!
 =無等은 에부터 말보다는 "합격" 실적을 앞세워 가는 학원입니다!!=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위 (중앙고교 우편함)
 www.mdgoal.co.kr ☎ 222-4560

합격률 전국 1위
공인중개사 오전반 야간반
4월1일 첫진도 시작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재상담접수중
 ♣ 현대적 학습시설
 ♣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 과학적 평가 시스템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

생활안내 광고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